

2012 수능

김복기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이 말하는 대입 지원전략

쉬운 수능, 기말고사까지 챙겨라



수능보러 가는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0일 3 수험생들이 험난한 입시관문을 연성케 하는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의 계단을 올라 고사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른 수험생들은 최대 고비를 넘어서지만 본격적인 대입까지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수능이 비교적 쉽게 출제돼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날부터 시작된 2차 수시 원서 접수기간에 맞춰 수능 가채점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면밀히 검토해 수시 원서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는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데다 처음으로 수시에서 미등록 출원이 실시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장점과 비교 우위를 냉정히 판단하고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광주 고교 진학부장들로 구성된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복기(동아여고·사진) 교사가 조언하는 대입전략을 소개한다.

◇가채점 신속하게 전형별 특성 살펴야=수능 가채점은 당일 저녁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좋다. 남은 수시와 정시모집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려면 자신의 수능 성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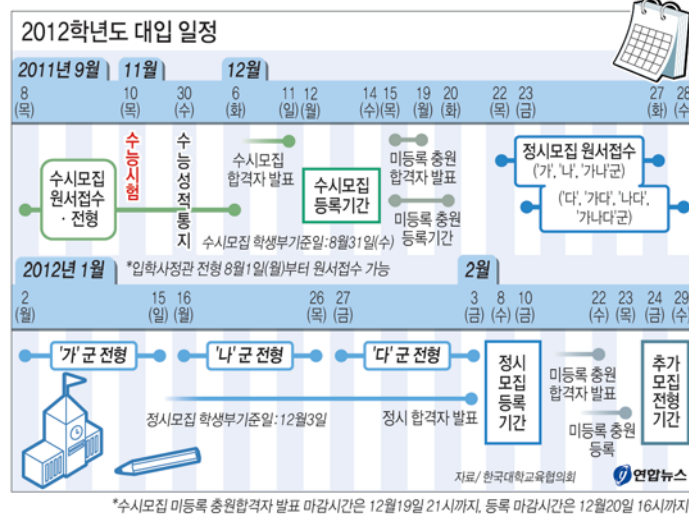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시모집 가·나·다 군별 진학 가능대학 수준을 진단하고 수능 전에 원서접속을 마친 수시1차 지원 대학의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지 판단해야 한다. 수능 이후 원서접속을 하는 수시 2,3차 모집에 지원할 지도 결정해야 한다.

◇수능 성적에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면 수시 2차에 참가하지 말고 정시에 무게중심을 뒤라 한다. 반면 수능 가채점 결과가 평소보다 낮거나 대학별 최저학력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면 수시가 정시에 앞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눈높이를 낮추는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

수능의 영역별 성적 편차가 크다면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 성적이 좋은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야 하며 특정 과목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수시 2차에 지원할 때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학 2~3개를 선별해 소신 지원하는 게 좋다. 합격하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시는 학생부, 논술, 면접, 서류 등 여러 요소가 활용되는 수시와 달리 '수능'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러나 같은 정시라도 대학별, 모



수능 성적에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면 수시 2차에 참가하지 말고 정시에 무게중심을 뒤라 한다. 반면 수능 가채점 결과가 평소보다 낮거나 대학별 최저학력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면 수시가 정시에 앞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눈높이를 낮추는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

수능의 영역별 성적 편차가 크다면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 성적이 좋은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야 하며 특정 과목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수시 2차에 지원할 때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학 2~3개를 선별해 소신 지원하는 게 좋다. 합격하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시는 학생부, 논술, 면접, 서류 등 여러 요소가 활용되는 수시와 달리 '수능'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러나 같은 정시라도 대학별, 모

집단위별로 수능·학생부·면접 등 전형요소 반영 비율이 제각각이므로 원하는 대학과 모집계열의 전형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기말고사도 챙겨라=정시모집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말고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올해 수시 추가 모집기간이 신설된 만큼 정시 모집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성적 1, 2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일부를 먼저 뽑는 '수능 우선 선발제도'는 올해도 주요 대학 대부분에서 실시된다.

대부분 대학의 수능 우선선발 비율은 정시 모집정원의 50~70%이며 대부분 수능 인수외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대학의 최대 모집군에서 실시된다. 학생부 성적에 비해 수능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수능 100% 반영 전형'도 눈여겨볼 만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능대박 나세요” 새벽부터 응원 준비 장애학생·소년원 재소자들도 실력 발휘

광주·전남 이모저모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4만1796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87개 시험장에서 차분히 진행됐다.

각 시험장 앞에는 고독증을 기원하는 학부모는 물론 교사나 2·3학년생들이 몰려,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각 구청과 경찰, 소방서, 군부대 관계자 등도 일제히 시험 지원에 나서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헌신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에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후배들과 선생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했다. 광주순일고 학생들은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응원 명단을 차지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나와 응원을 준비하는 등 10여개 학교 학생들은 '뽀는 눈 위에는 나는 눈 있고, 나는 눈 위엔 선배들이 있습

니다, '수능 뿌잉뿌잉' 등 재치 넘치는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을 펼쳤다.

◇제22시험장인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정광고에서는 한 수험생 어머니가 시험장에 헬레벨떡 튀어와 아들이 놓고 간 도시락을 전달, 애절한 모습을 보였다. 오전 8시 13분 입실 마감시간이 다 되어 도착한 어머니는 “우리아들이 00학교 000”라며 챙겨가지 못한 도시락을 전달해 달라고 울먹였다. 마침 옆에 있던 담임선생님이 이 도시락을 감독관에게 전달한 뒤, 학생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광주 선명학교에서는 장애학생 35명, 소년원 재소자 2명 등 37명이 어려운 여건 속에 쌓은 실력을 발휘했다.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특별하게 제작된 시험지 및 명단을 차지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나와 응원을 준비하는 등 10여개 학교 학생들은 '뽀는 눈 위에는 나는 눈 있고, 나는 눈 위엔 선배들이 있습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상위권에 까다로운 고난도 문제 복병” 광주지역 입시전문가들이 본 수능

광주지역 고교 3학년 진학부장 등 입시전문가들은 10일 치러진 수능에서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등에서 EBS교재와의 연계 출제율이 70%대 를 유지, 지난해 수능보다 확연히 쉬웠다고 진단했다.

◇언어=지난해 수능보다 1등급 컷이 1~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지 고 문항이 적었다.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 제됐으며, 9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어려웠는데 일부 수험생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따르면 1 교시 언어영역은 전체 50문항 중 37 개 문항이 EBS 교재·강의와 연계 출제돼 연계율은 74%로 전 영역 중 가장 높았다. 이규연(수완고 진학부장) 교사는 “언어영역은 EBS 교재 연계율을 높이

서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쉽게 느꼈을 것”이라며 “비문학 부분의 경우 EBS 교재 연계는 했지만 학생들에게 익숙치 않은 어려운 지문들이 나온 때문 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리=10일 치러진 2012학년도 수능 2교시 수리영역의 난이도에 대해 입선 교사들은 작년보다는 쉽고 9 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어렵다고 평 가했다. 교사들은 수리 가·나형의 EBS 연계율이 수능출제본부가 밝힌 대로 각 70% 정도였고, 번번력을 위 한 고난도 문항은 비연계 문항에 집 중됐다고 말했다.

박연중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 대표(송원고)는 “EBS교재와의 연계 율이 70%대를 유지해 중위권 학생들 에게 쉽게 느껴졌을 것”이라 “일부 문제의 경우 EBS교재에서 제시된 문 항 가운데 숫자만 변형돼 출제된 문

제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문항 2~3개가 출 제돼 상위권 학생들이 다소 고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어=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1등급 컷이 2~3점 정도 올라 95~97점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문일고 김해남 교사는 “작년 수능 보다 매우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쉬운 것 같다”며 “만점자 비율이 1%를 넘을 것 같다”며 “1등급 컷이 2~3점 정도 올라 95~97점이 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화여고 윤장환 교사는 “EBS 연 계문항 35개 중에서 무려 20개 문제 가 ‘수능완성’이라는 EBS교재에서 나왔고 어려운 편에 속하는 ‘고독점 330제’ 교재에서 4문제가 연계됐다”며 “고독점 330제를 충실히 했는지에 따라 체감 난이도 차이가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울대 수시모집 80%로 확대

201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수시모집 정원을 현행 60% 수 준에서 80%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서울대는 10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 고 수시와 정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 3124명(정원의 80%)을 뽑는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대학신입생 선발 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선발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 기준 으로 정원 대비 60.8% 수준인 수시모 집 모집인원이 79.4% 수준으로 2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난다. 2012학년도 기준 39.2% 수준인 정 시모집 모집인원은 내년부터 20.6%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수시모집의 특기자전형은 일 반전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2012학년도 기준으 로 특기자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37.9% (1173명)를 선발하나 내년부터 수시 일반전형으로 변경되면서 정원 의 55.5% (1733명)을 모집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2012학년도 기준 정원 대비 22.9% (710명)에서 내년 23.9% (748명)으로 1% 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2012학년도 정원 대비 39.2% (1213 명)에서 내년에는 20.6% (643명)으 로 모집 인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 한다. /연합뉴스

“영역별 만점자 1~1.5%” 이홍수 출제위원장 일문일답

이홍수 출제위원장 일문일답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이홍수 전남대 교수는 10일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수능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 은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언어, 수리는 조금 더 어렵고 외국어는 좀 더 쉽게 출제했다”며 “영역별 만점자가 1.0~1.5% 사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교재 내용을 지나치게 변형 안 했다고 했는데 동일 문항이 있는 가. 연계 출제된 건 어떤 내용인가. ▲EBS 교재 내용과 연계해서 70%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영역별, 과목별로 노력했다. EBS 교재 내용과 과목별 일치도가 산술적으로 70% 이상 되도록 연계했다. -만점자 1% 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했는데 다음 수능 계속 적용되나. -만점자 1% 가 지속될 것 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1% 만점자 목표표 수 는 출제했는데 실제 1% 나올 수는 없게 어느 정도까지 1% 성공이라고 보는가. ▲수험자 집단의 특성이나 문항 유형 특성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의 통계 자료 바탕으로 최소 1.0% 에서 적어도 1.5% 사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연합뉴스

“그렇다. 다음 수능에 만점자 1% 가 지속될 것 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이홍수 전남대 교수는 10일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수능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 은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언어, 수리는 조금 더 어렵고 외국어는 좀 더 쉽게 출제했다”며 “영역별 만점자가 1.0~1.5% 사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2012 정시모집 주요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Table showing the percentage of national exam scores reflected in admission for various universities across different subjects (Humanities, Natural Sciences) for the 2011 and 2012 admission cycles.

주요대학 수능 선발기준

Table detailing the admission criteria for major universities, including the number of seats and the required score percentages for each university.

2012학년도 수시 2·3차 원서접속 대학

Table listing universities for the 2nd and 3rd rounds of early admission, including application dates, exam dates, and the number of seats available.

A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today, featuring a map of South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sun icon indicating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a table of forecast data for different regions.

“영역별 만점자 1~1.5%” 이홍수 출제위원장 일문일답

A table containing the interview transcript with Chairman Lee Hong-soo, detailing his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the exam's difficulty, the number of perfect scorers, and the EBS content linkage.